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49

▶ 50회 예고
아쇼까 일행은 숫빠라까에서 여장을 푼다. 연회가 끝나고 숫빠라까 상인수장과 데바는 정원에서 교역 얘기를 나눈다. 그때 비베깐난다 사문이 와서 합석한다. 비베깐난다 사문은 붓다의 제자 뿐나 존자가 숫빠라까 출신임을 알려준다.



아쇼까, 잃었던 군사를 되찾다

사바르마티강 강변에서 숙영한 아쇼까 일행은 마음 놓고 화톳불을 피웠다. 낮에는 열풍이 불 만큼 뜨거웠지만 밤에는 기온이 껑충 떨어져 턱이 떨릴 만큼 추웠다. 일찍 일어난 데바와 비베깐난다도 화톳불을 만들어 쬈다. 경계군사들도 경비대장의 허락을 받아 화톳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였다. 숫빠라까로 들어간 정찰조 조장이 돌아와 아쇼까에게 보고했다.

"숫빠라까에서 왕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왕보다는 상인수장을 더 존경하고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군사는 없던가?"

"무기를 든 노비들뿐이었습니다."

"그러니 해적들이 활개치고 다녔겠지."

"왕과 상인수장이 사바르마티강까지 나와 영접할 것입니다."

정찰조 조장이 수나빠란따국의 왕을 만나 협의했다기보다는 왕이 먼저 영접하겠다고 나섰던 것이다. 아쇼까를 만남으로 해서 숫빠라까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조금이라도 되찾겠다는 의도였다.

이윽고 아쇼까 일행은 사바르마티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순행 군사를 태운 말들이 얕은 강물에 발목을 적시며 겅중겅중 나아갔다. 강 건너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아쇼까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쇼까 일행이 강 중간쯤에 이르자 악기 연주소리가 들려왔다. 수나빠란따국 왕이 데리고 온 악대였다. 낙타를 타고 있는 초라한 사람이 수나빠란따국 왕이었다. 아쇼까가 강변에 이르자마자 수나빠란따국 왕이 쫓아와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부왕님이시여, 저희를 찾아주시니 영광입니다. 저희들은 부왕님을 편하게 모시고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소. 마우리아국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 만족스럽소."

말에서 내린 아쇼까가 수나빠란따국 왕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손은 주름살이 자글자글했고 거칠었다. 이름만 왕이지 평민의 손이었다. 그가 숫빠라까 상인수장을 소개했다. 숫빠라까 상인수장도 왕처럼 검은 피부였지만 체구가 왕보다 두 배쯤 컸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입니다."

그러자 아쇼까가 데바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상인수장은 상인수장끼리 할 얘기가 많을 것이오. 서로 도울 수 방법을 찾아보시오."

"뵙기를 고대하고 있었소."

데바가 먼저 숫빠라까 상인수장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때 수나빠란다국 왕이 아쇼까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지난번에 해적들이 부왕님의 군사를 해쳤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해적들의 만행을 대신 사과드립니다."

"해적들이 숫빠라까에 버젓이 산다는 것은 마우리아국 수도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변방이기 때문이오. 마우리아국 대왕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해 생긴 일이니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오."

아쇼까에게 면책을 받은 수나빠란따국 왕은 이번에는 공손하게 감사의 말을 했다.

"저희들이 손을 쓰지 못했던 해적들을 소탕해 주신 덕분에 이제부터 숫빠라까 항구는 평화를 되찾을 것 같습니다."

"해적들이 숫빠라까 도시를 활개치고 다녔다는데 사실이군."

"그 자들이 광분하면 숫빠라까는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에게 정예군사가 없는 까닭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들에게 또 다른 해적을 막아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거느린 노비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숫빠라까 상인수장도 한 마디 거들었다.

"그 자들이 다른 해적을 막아주어 고맙기는 했지만 너무 많은 돈과 물건을 갈취해갔습니다. 그래도 그 자들을 이용하지 않고는 바닷길 장사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병 주고 약주는 해적들이었군."

"그렇습니다. 해적들은 수나빠란따국 때부터 대대로 숫빠라까에 터를 잡고 살아온 독버섯 같은 무리였습니다."

왕이 데리고 온 악대는 빈약했다. 고물 같은 악기를 들고 있는 서너 명의 늙은 연주자들은 하나같이 멍하니 무표정했다. 아쇼까 순행단은 숫빠라까 상인수장을 따라 강변에서 도시로 이동했다. 도시는 남쪽 둔덕과 북쪽 저지대로 나뉘어져 있었다. 왕과 부자들은 둔덕에서 살았고, 장사를 하는 평민과 노비들은 저지대에서 살았다. 그런데 북쪽 저지대에는 평민들의 주거지와 천민들이 외국으로 팔 물건들을 만드는 상업지구로 나뉘어 있었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말했다.

"저는 저 둔덕에 살고 있습니다."

둔덕은 저지대보다 조금 돌출됐을 뿐 아주 높지는 않았다. 그래서인지 긴 장대 한 개 정도의 높이로 벽돌을 쌓아 외성처럼 보호하고 있었다.

"둔덕이 있는데 왜 벽돌을 쌓은 것이오? 왕이 거주하는 곳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런 것이오?"

"아닙니다. 강물이 범람할 때를 대비해서 둔덕을 튼튼하게 한 것입니다. 둔덕에 오르면 강과 도시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길로 가시면 바로 둔덕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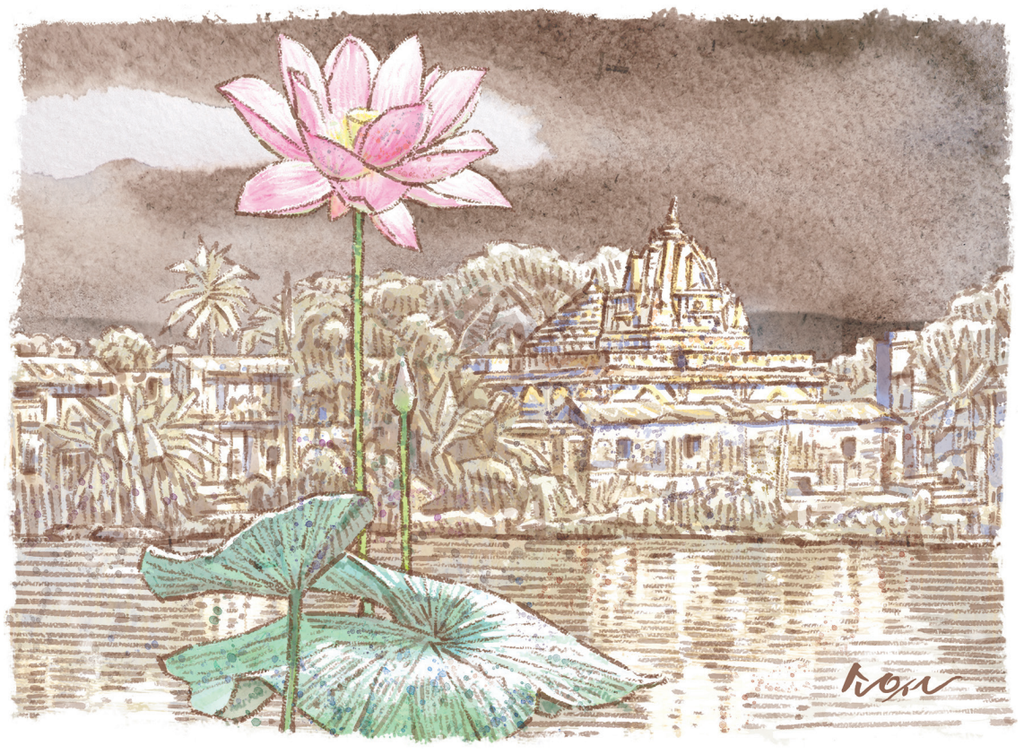
"아니오. 나는 저지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직접 보고 싶소."

아쇼까는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둔덕으로 안내하겠다고 했지만 평민들이 사는 저지대로 가고 싶어 했다. 아쇼까의 명을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왕이 나서서 말했다.

"저지대 도시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앞서시오."

왕은 도시 안의 조선소를 먼저 갔다. 조선소에는 저수조가 붙어 있었다. 저수조는 강물을 끌어들였다가 빼기도 하는 곳이었다. 수리할 배를 도시 안의 조선소까지 오게 하고, 새로 건조한 배를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이었다. 도시 안으로 들어서자 벽돌로 바닥을 깐 공동목욕탕 및 거주지 군데군데 여러 개의 우물과 빨래터,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하는 운동장 등이 조성돼 있었다. 강물이 도시 외곽으로 흐르도록 인공수로가 있고, 거주지의 폐수가 빠져나가는 하수로도 따로 나 있었다. 모든 시설들은 붉은 벽돌로 조성되어 아주 아름답고 견고하게 보였다. 비베깐난다 사문은 숫빠라까의 편의시설들이 결코 빠딸리뿌뜨라나 바라나시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내심 놀랐다. 고타마 붓다 시절에도 이곳 사람들은 난폭하다고 했지만 이처럼 공공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에 뿐나 존자가 살았다는 것이 놀라웠다.



아쇼까 일행은 저지대 도시 중에서 천민들이 사는 거주지로 갔다. 천민들은 상인들이 주문한 구슬 목걸이, 조개를 가공한 팔찌와 발찌, 채색도자기 등 수출품을 만들기도 하고, 마노, 자수정, 상아, 대리석을 가공한 물건들을 좌판에 내놓고 판매를 했다. 아쇼까는 순행단에게 각자 마음에 드는 공예품을 살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주었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데바를 통해 거듭 간청했다. 데바가 아쇼까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부왕님,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부왕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소?"

"저도 궁금합니다. 이제 둔덕으로 올라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쇼까는 데바의 권유에 둔덕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제야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데바가 아쇼까의 장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 친근해지려고 다가왔다. 데바와 숫빠라까 상인수장은 금세 허물없이 장사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로 변했다. 데바가 순행단 일원으로 수나빠란따국에 온 것은 대성공이었다.

과연, 둔덕에 오르자 숫빠라까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다. 무엇보다 바빌론이나 이집트로 수출할 물품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대한 창고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아쇼까는 지금까지 보았던 창고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창고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비베깐난다 사문은 가끔 눈물을 흘리고 다녔다. 고타마 붓다 시절 뿐나 존자의 고향이라는 숫빠라까에 와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기 때문이었다. 비베깐난다 사문은 감격에 겨워 중얼거렸다.

'아, 뿐나 존자님께서 이곳 고향으로 돌아오시어 성질이 흉악하고 사납고 거친 숫빠라까 사람들을 5백 명이나 불법에 귀의시켰단 말인가? 그 절터는 어디쯤일까? 저지대 천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 나도 산치 절을 떠나 뿐나 존자님처럼 이곳 사람들을 불법에 귀의시킬까?'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말했다.

"부왕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연회를 준비했습니다. 바라건대 순행길의 피로를 푸시고 숫빠라까 도시까지 마우리아국 대왕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옵니다. 부왕님께서 해적들을 단번에 제거해 주시니 저희 상인들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저의 궁으로 초대하자니 너무나 초라하여 우리 상인수장 저택의 연회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알겠소. 환대를 잊지 않겠소."

아쇼까 일행이 숫빠라까 상인수장 저택으로 들어서는 순간 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졌다. 왕이 강변으로 데리고 온 허술한 악대와 규모가 달랐다. 모두 젊은 악사들이었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집트와 페르시아에서 수입한 관악기를 들고 나와 연주를 했다. 하인들은 순행단 목에 일일이 향기로운 꽃목걸이를 걸어주어 기쁨을 주었다.

연회장은 웃자인의 궁중연회장 못지않았다. 크고 화려했다. 진귀한 장식구와 이집트, 바빌론에서 수입한 조각품들이 연회장 가득 진열돼 있었다. 연회가 시작한 직후 왕이 환영사를 짧게 하고 난 뒤였다. 왕에 이어 숫빠라까 상인수장도 환영사를 했다.

"지금 저 무대 뒤에는 부왕님께서 좋아하실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순행단을 이끈 경비대장이 말했다.

"부왕님께 선물할 진귀한 보석이오."

"아닙니다. 진귀한 보석보다 더한 것입니다."

왕이 눈을 찡끗하며 말했다.

"우리 숫빠라까의 아리따운 미녀요."

"아닙니다. 부왕님께서 미녀보다 더 바라시는 무엇입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부왕님을 한시라도 빨리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은 물건 값을 흥정하듯 순행단의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가 했다. 아쇼까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데바를 쳐다보았을 무렵이었다. 숫빠리까 상인수장이 손을 치켜들자 악대가 다시 흥겨운 연주를 시작했다. 뒤이어 무대 뒤쪽에서 지난번 정찰 나왔을 때 해적들에게 붙잡혀 노예로 팔렸던 군사들이 등장했다. 모두 일곱 명이었다.

경비대장은 그들을 보자마자 무대로 달려 나왔다. 한 명 한 명 껴안으며 축하의 말을 건넸다. 아쇼까 역시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몹시 흡족해했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말했다.

"저는 부왕님의 군사를 노예로 사지 않았습니다. 해적들에게 그런 적했을 뿐입니다. 저는 언젠가 부왕님이 오실 줄 알고 군사들을 저희 저택에서 편하게 머물게 했습니다. 해적들을 소탕시켜 준 부왕님의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쇼까는 숫빠라까 상인수장의 말을 듣고는 감격했다. 잠시 후 아쇼까는 수나빠란따국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무역권을 그에게 주겠다고 선언했다. 웃자인과 바라나시 꼬삼비, 빠딸리뿌뜨라 등의 교역은 데바와 상의해 결정하라고도 명했다. 그러자 연회장 모든 사람들이 박수로 환호했다. 박수소리가 연회장 밖까지 간간이 터져 나왔다.〈계속〉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 (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